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朝夕刊) 一個月金壹圓 三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 每行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朝鮮人과 產業問題(三)
努力의 餘地가 果然 업는가

一

國家의 權力을 背景으로한 資本主義經濟의 進攻이 잇는곳에 劣勢한 經濟가 破滅되는 것은 免치못할 形勢이다 이러한 見地에 잇서서 朝鮮人의 企業이 만히 失敗하고 朝鮮人의 耕作地가 만히 日本人에게 吸收되는 것은 必然한 歸結이다 그러나 數十年來 朝鮮人의 企業이 失敗에 돌어간 細密한 內容은 다만 外來資本의 侵蝕뿐이 아니라 그 當事者들의 不忠 不明等 人格的缺陷이 大部의 原因을 지엇다 할것이오 耕作地의 移動은 또한 白熱한 市場裡의 產業的角逐에서의 失敗로서 보다는 無識한 射倖心의 發作과 或은 淺薄한 遊興慾의 滿足에 因한 바만헛섯다 未熟한 經驗과 疎漏한 智識으로 米豆의 取引과 鑛山의 經營等에 着手하야 一旦에 家產을 蕩盡한것가튼것은 그 例가 매우 만흔 바로서 누구나 首肯할 바이다 차를며 所謂 白面書生 겨우 學窓을 나온者가 居然히 天下의 大事業家이나 俊秀한 企業家와 가티 自處하고 勝勞를 虛張하며 邊幅을 假飾하야 放漫華奢한 施設이 必然의 大損失을 目前에 當하게 되는 것은 거의 恒例와 가티 되여 와섯다 이것은 資本主義經濟의 侵蝕을 痛論하는 者의 아울러 銘心또深察할바이다

二

產米增產案과 治山治水의 事業等 當局의 經濟的施設이 매우 劃時期的으로 나아감을 指摘하엿섯다 豆滿江의 水量을 利用하야 咸南의 永興一帶에 大規模의 水力電氣를 일으킴으로 同地方이 머지안허 一大工業地帶를 이룰것이라하거니와 彼等의 國營 및 私設의 鐵道를 合하야 南朝鮮의 商業都市들을 縱貫하는 交通網의 建設運動이 잇슬뿐아니라 東海岸을 沿하여서의 咸東鐵道와 實現의 途程中에 잇는 平元鐵道와 將來 敷設되리라고 豫想되는 鴨綠豆滿兩江에 接近된 國境鐵道가튼것을 合하야 彼等의 朝鮮에 對한 交通政策은 다만 產業的要求에만 應함이 아니오 더욱 軍事的必要에 依함이 만흔것을 엿볼것이다 新任한 森岡軍司令官은 朝鮮에 增兵할 必要를 說하얏다하거니와 裝甲列車의 設置와 京城과 新義州等地에 高射砲隊의 建設과 및 航空隊의 擴張等計劃은 前記한 交通網의 設置 大工業의 企劃等과 아울러 彼等統治群이 積極策을 赤裸裸하게 際開하는 바이라 이러한 四面의 慾望裡中에 잇서서 朝鮮人의 產業發展을 論함이 매우 迂遠함에 갓가울지마는 彼等의 勝勢가 어떠케 天地를 뒤흔드는 바잇슴에 不計하고 朝鮮人이 그의 가진바 最大의 能率을 發揮하야 最後的인 產業的運動을 닐으킴은 가장 迂遠한듯하되 가장 賢明한 生存運動의 一對策인것이 明白하다

三

먹고커야하되 먹을것이 업다 배웟스되 職業을 가질수 업다 그리고 朝鮮人은 온갓 向上의 機會로부터 除外되엇다 이는 吾人이 天下人에 率先하야 큰소리로 외치고커하는 바이다 그러나 吾人은 오히려 朝鮮人은 口舌의 雄이 더고 指摘하는 것이 가장 忠實한 苦言인 것을 안다 昔者高麗의 徐熙는 數旬의 辯舌로써 蕭遜寧의 七十萬兵을 물리처서 契丹人의 南下를 防止한바 잇섯다 그러나 이는 徐熙의 數旬辭보담은 高麗의 太祖에 依하야 訓練된 三十萬의 光軍이 그의 背後에 잇슨것을 생각지 안허서는 아니될것이다 口舌에 長함으로 그 實際에 等閑함이 民族의 繁榮을 冠害한바 잇고 民族的運命이 이미 窮困하여저서 갈스록 더욱 口舌에 능홈이 잇다할지며 이는 갈스록 더욱 그 形勢를 挽回할 길이 업서지는 것이다 朝鮮의 富裕階級들은 今後에 더욱 現代的企業에 成功者되기를 期하고 서로 聯合하야 新事業을 닐으킬것이어니와 朝鮮의 先驅者들은 또한 이 複雜한 社會의 事情을 吟味하고 省察하야 大衆의 指導에 萬全의 策을 期하여야할것이다 產業運動의 소리는 반듯이 社會鬪爭의 論과 아울러 닐어나야할 것이라한다

墨國政府에서 英佛僧侶捕縛
百餘名에게 退去强請

(나우엔二十九日發) 墨西哥政府는 英佛의 僧侶百餘名을 捕縛하야 四十八時間以內에 退去를 强請하엿다더라

羅波間에 調印된 攻守同盟條約

(뿌도無線二十八日發) 羅馬尼外相「폰데유카」氏와 羅馬尼駐箚波蘭公使는 二十八日에「푸가레스트」에서 新히 兩國間에 締結된 攻守同盟條約에 調印하엿다 右는 千九百二十一年三月三日에 五個年間의 期限으로 調印되엿던 舊約에 代할것으로 特別裁判條約을 包含하엿더라

『오루레안』公逝去
佛蘭西王家의 嗣孫

(伊太利電) 『오루레안』公은 廿八日에 逝去하얏는데 公은 一八六九年 英國에서 生한「루이」의 子로 佛蘭西王家의 嗣孫이엇다더라

吳佩孚軍이 玄江丸을 射擊
一名卽死、四名負傷

(漢口二十九日發) 日淸汽船玄江丸은 昨日岳州에서 吳佩孚軍의 射擊을 受하야 彈丸이 船體에 集中되야 船客一名은 卽死하고 四名은 負傷하엿다더라

吳佩孚는 政局을 觀望

(東京電) 某處着電에 依하면 吳佩孚는 北京政局의 變化如何에 不拘하고 當分漢口에 在하야 政局을 注視할터이라더라

張宗昌唐山行

(東京電)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張宗昌氏는 張學良氏와 會見키 爲하야 二十八日朝天津을 發하고 唐山에 向하얏다가 更히 相携하고 山海關에 向하야 張作霖氏와 會見할터이라더라

貨車撤去事件解決?

(東京電) 山東鐵道貨車撤去事件에 對하야 曾往부터 日本政府는 濟南藤田總領事를 經하야 中國側에 抗議中이던바 直魯軍이 天津方面에 侵入하얏슴으로 鐵路局長은 右貨車全部一千四百輛을 從前과 如히 돌리어보내기로 同意하고 同鐵路車輛課長은 二十九日此旨를 藤田總領事에게 回答하얏다더라

國軍의 銀行團脅迫

(天津電) 國民軍은 北京을 撤退하야 南口以北에 屯陣하기로 決한 後 銀行團을 脅迫하야 三百萬元의 調達을 命하얏는데 銀行團은 四十萬元으로 減額하야 달라고 哀願하는 中이라더라

京大總長 服部博士確定

(東京電) 來四月로부터 開校할 朝鮮京城大學總長은 東京帝大敎授服部宇吉博士로 確定되얏더라

佐藤正式起訴

(東京電) 田中大將三百萬圓事件을 摘發한 佐藤軍吉은 詐欺罪에 依하야 三十日正式으로 起訴收監되엿더라

改正法案 實施期早速은 豫定輸入防止

(東京電) 第五十一議會를 通過한 關稅定率法의 改正法律은 二十九日官報로써 公布된 後 卽日로 施行되엿는바 右法令은 四月一日부터 公布施行할터이엿스나 同法의 性質上 議會通過後 施行期日을 遷延할 時는 豫想輸入其他에 依하야 過渡的減收가 增加할 憂慮가 잇스리라는 豫定으로 三日을 速히하야 二十九日부터 施行한것인데 此三日間의 貿易商은 約三、四千萬圓으로 認定할 時는 相當한 關稅의 增收를 볼것이더라

關稅改正案公布施行

(東京電) 第五十一議會를 通過한 關稅定率改正案은 二十九日官報號外로써 公布施行되엿더라

閣議決定事項

(東京電) 三十日의 日本閣議는 午前十時로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幣原外相으로부터 最近의 外交經過와 中國動亂에 關한 報告가 有한 後 財部海相으로부터 揚子江沿岸의 警備에 對하야 報告가 有하얏는데 當面의 重要政務를 審議하고 政府의 新政策樹立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한 後 正午에 散會하얏는바 決定事項은 左와 如하더라

一、大正十三年勅令第三十號內閣所屬職員臨時設置에 關한件中改正의件
一、明治神宮造營官制改正의件
一、稅制整理에 關한 施行規則並廢止勅令十三件
一、民事訴訟並非訟事件役所廢止에 關한件

露紙强奪事件 畢竟取調着手

(東京電) 中野代議士事件에 關한 政友側의 證據書類新聞原本盜難事件에 對하야 憲政會側은 直時告發하고 犯人의 檢擧를 要求하엿섯는데 司法官憲은 民政派와 關係잇는 政友會의 牧野良三氏로부터 聽取키로하야 東京地方裁判所石田檢事는 三十日午前十一時 牧野氏의 出頭를 求하야 約二時間에 亘하야 其實相을 質問하엿더라

諸稅法及其他 三十一日公布

(東京電) 所得稅其他의 改正廢止又는 新設에 關한 稅法附屬의 各種施行規則의 改正廢止又는 新設에 關하야는 三十日閣議에서 決定하얏스나 當日宮中의 形便으로 裁可를 得치 못하고 三十一日裁可를 經하야 卽日官報號外로써 公布되얏다 右勅令은 所得稅法施行規則中改正勅令以下十二勅令이더라

全羅勞農聯盟
◇…第三回定期總會 組織及統一案通過

全羅勞農聯盟第三回定期總會는 豫定과 如히 三月二十八日同會舘에서 開催하고 前會會錄朗讀、經過報告、各地狀況報告、任員改選이 잇슨 後 一時休會하엿다가 繼續開會하고 同聯盟側及全南勞働農民兩聯盟發起準備委員側과의 聯合會에서 議定한 事項을 擧하야 만흔 討議가 有한 后 全部承認하기로 하고 左와 如히 決議하얏다더라

◇執行委員
林大奎 金富坤 金完根 金基洙 李基洪 李榮珉 徐丙箕 曹奉奐 申炳叙 文秦坤 金有繁 洪週範 林烽廬 南騎 朴平準 李相鯤 李益秉 魏仁珙 尹柱培

◇決議事項
一、全北勞働農民分立의 件 (가)本聯盟의 加盟團體中에 全羅南北道를 分하야 農民團體는 따로 農民聯盟을 勞働團體는 따로 勞働聯盟을 組織할일 (나)全羅南北道를 分하야 農民勞働의 兩聯盟組織이 完成되면 本聯盟은 解體할일
二、全南勞働農民運動統一에 關한 件 全南勞働農民兩聯盟創立準備委員五人을 選擧하야 各郡聯盟組織을 促成하며 兩聯盟創立總會를 三個月以內에 開催할일 (準備委員 金順基 曹俊基 李榮珉 金完根 金基洙)
三、全北勞働農民兩聯盟組織은 委員會에 一任할事
四、各地盟罷에 關한 件 (木浦製油職工 仁川精米工 咸興印刷工 各盟罷에 對하야 同情金을 募集하며 聲告文을 發送할事

元山電燈 値下申請提出

元山水力電氣會社의 電燈料一段引下認可申請書를 去三月二十九日附로 咸南道保安課를 經由하야 朝鮮總督府遞信局에 提出하엿다더라(元山)

洪川化村面에 公普設置陳情
八千圓의 基金까지 積立

洪川郡化村面은 同郡中央에 位置하야 人口九千을 有한 面으로 面敎育機關으로는 改良書堂一個가 잇서 五六十名兒童을 겨우 收容할뿐임으로 面民은 曾往부터 完全한 普校設置를 希望하던바 今年에 至하야는 面內有志金東燮氏外十數名의 發起로 化村啓發의 會를 組織하고 今年中에 期必코 實現코저 活動을 開始하야 去二十三日 道當局에 陳情하엿다는데 陳情委員은 金東燮 崔泰鎬 金永浹 諸氏라더라(洪川)

巨文公普學藝會 麗水

麗水郡三山面巨文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八日 校庭에서 學藝會를 開催한바 男女觀客은 人山人海를 일우엇스며 新學期生徒募集에도 莫大한 好影響이 잇다고 하더라(麗水)

仁川少年軍 江華에 野營
各種宣傳兼行

仁川少年軍은 去二十六日午後 同團長郭商勳氏 引率下에 十四名이 江華에 到着하야 同二十七日午前七時부터 野營을 試行하얏는데 市內로 다니면서 防火及衛生時間嚴守等을 宣傳하엿고 午後七時三十分부터는 江華少年會主催로 新門里合一學校大講堂에서 懇談會가 잇슨 後 各種餘興으로 閉會하엿스며 二十八日午前十時에 吉祥面傳燈寺로 向하야 同寺에서 一泊하고 三十日午後五時에 仁川으로 歸向하얏더라(江華)

錦山蔘組總會

去二十七日 錦山郡錦山蔘業組合第五回定期總會에서는 出席員이 百二十餘人에 達하얏는데 錦山에 唯一한 特產物로 昨年에 四千餘斤의 產出이 有하엿고 今年에는 六千斤豫算이더라(錦山)

井邑新春講演
警察이 自由登壇禁止

全北井邑邑內校工同盟會에서는 井邑青年會、井邑勞農會、井邑五成會、井邑本社支局 四個團體의 後援으로 三月二十八日井邑青年會舘에서 新春大講演會를 開하고 左記와 如한 各演士의 熱辯으로 盛況을 일우엇는데 警官으로부터 自由登壇은 不許하얏다더라

◇演士及演題
世界大勢와 新社會의 思想 □□□ 平等 朴錦 藝術과 科學으로 본 우리 金永東 勤苦의 所得 李益秉 □□□□ 崔重珍(井邑)

咸平의 少年軍
盛況의 閉團式

咸平少年軍은 去二十七日 咸平青年會舘에서 閉團式을 擧行하얏는데 式前에 團歌를 唱하고 市內에 行列하야 傳單비라를 散布한 後 午後四時 同會舘內에는 同隊長李鉉君의 指揮下에 京鄕團體로부터의 祝電朗讀과 紀律問答의 宣誓를 마친 後 來賓諸氏의 意味深刻한 祝辭가 잇섯고 咸平少年軍萬歲三唱과 朝鮮少年軍 全世界少年軍萬歲三唱과 團歌로 閉式한 後 紀念撮影까지 잇섯다는 同隊는 朝鮮少年軍에 加入한 第四十四隊의 承認을 受하엿다하며 同隊의 任員은 如左하다고
理事 李盛祺 申鉉麒 金相烈 幹事 李鉉 申鉉哲 李官勳 李長範(咸平)

新春講演及 音樂舞蹈大會
四月初旬元山에 開催

元山革風會 新入同盟 青年同盟 三團體의 聯合主催로 京城에 잇는 趙鍾鳴 □□□ 諸氏를 招請하야 新春講演及音樂舞蹈大會를 四月初旬에 盛大히 擧行코저 幹部側에서는 準備에 忙殺中이라는데 此壯擧의 目的은 大衆을 爲하는 文庫를 設할 計劃이라하며 □□의 □□과 舞蹈와 □女史의 雄辯은 京城에서도 一指를 屈하는 天才임으로 元山의 一般人士는 此目的을 贊成하는 一便 □□兩氏의 天才的 發揮를 觀覽하야주기를 希望한다더라(元山)

一切疎感을 超越한 全南運動者懇談
聯盟組織의 議定書作成

三月二十七日光州光一旅舘에서 全羅勞農聯盟委員側과 全南勞働農民兩聯盟發起委員側과 會合하야 懇談會를 開催하고 誠意로써 協議를 거듭한 結果 左와 如한 議定書를 締結케 되얏는데 此는 朝鮮社會運動上 참다운 曙光이라고 運動者間에는 매우 歡喜한다더라(光州)

◇議定書
三月二十七日午前十一時 光一旅舘에서 全羅勞農聯盟委員 李榮珉 林大奎 曹俊基 金基洙 金龍基 金奉申 辛命俊과 全南勞働農民聯盟發起準備委員 奇老春 申晙熙 南局과 會集하야 懇談會를 開催하고 兩聯盟發起準備委員側에서 全羅勞農聯盟委員에게 對하야 左記事項을 協議한 結果 雙方의 意見이 一致되다
一、全南勞働農民兩聯盟創立準備에 關한 件 全南勞働農民兩聯盟創立準備는 全羅勞農聯盟側에서 五人 全南勞働農民發起準備委員側에서 五人 合十人이 새準備委員이 되고 常務委員은 兩側에서 各二人式으로 할것
二、光州紛糾事件의 關聯된 人物은 準備委員으로는 選擧치 말일
三、道聯盟은 郡聯盟을 單位로하야 組織함을 原則으로 하되 一郡에 一個團體만 잇서서 郡聯盟을 組織키 不能한 時는 直接加盟함을 得함 (但 出席代表는 郡聯盟三人以內 團體側二人以內)

四、創立總會召集은 準備委員 十人에게 一任하되 三個月以內에 必히 召集할事(場所는 光州로 할것)

襄陽討論盛況

襄陽郡大浦里修養團主催의 討論會는 三月二十八日 當地洞舍內에 開催되바 『事業成就에는 物質의 豐富냐 身體의 健이냐』라는 演題로 各便演士가 熱辯을 다하야 大盛況裡에 마치엇다는데 各便演士는 如左하다고
物質便 朱尙南 盧忠根
身體便 崔順吉 黃億鏞

◇慶南少年蹴球延期

金海少年會主催 慶南蹴球大會期日은 三月二十七、八日이든바 形便에 依하야 來夏期로 延期하엿다더라(金海)

智島에 新設된 陽明女學院

旣報 智島女學院期成會에서는 各委員의 努力과 有志의 同情으로 諸般準備가 完成되야 去二月十四日 委員會에서 學院名稱을 智島陽明女學院이라하고 本敎員은 多年敎育界에 貢獻이 잇는 金喜嚴女史 金判任 兩氏로 定하야 學生募集과 其他任務로 各里에 巡廻中인데 開學은 四月四日이라하며 被選된 責任幹部는 如左하다더라
◇幹部

革新青年創立
二十二日永興에서

咸南永興郡億岐面上細竹에서는 當地有志青年諸氏의 發起로 去二十二日 革新青年創立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定하엿다더라

◇綱領
一、우리는 合理的社會建設을 期함
一、우리는 階級意識을 覺醒하는 同時에 無產青年의 團結을 期함
一、우리는 無產青年의 敎養을 期함

◇執行委員
金重極 金仁淑 金鼎兗 金昌淑 金亨淑 金載坤 宋石根 金正九 金榮寅 金東根(庶務部) 金重極 金仁淑 金戴兗(敎養部) 金昌淑 宋石根(宣傳部) 金亨淑 金戴坤(調査部) 金正丸 金榮寅 金東根(顧問)

加省洞約創立

龍川郡北中面加省洞에서는 去二十四日 同里張永韶氏家에서 洞約을 創設하고 左記各項을 決定하얏다더라

◇決議
孝親敬長 老幼扶助 無產者及婦女優待의 件 洞內各組에 一個以上의 光明燈設置할것 二十歲以下의 飮酒 十八歲以下의 喫煙을 嚴禁할事 冠婚喪祭經費를 節約하고 僞文虛禮는 廢止할事 賭博、富籤及不正行爲는 嚴禁할事

◇任員
洞約長 張昆植 幹事 張興天 張鳳朝 評議員 若干人(龍岩浦)

新人同盟緊急會

元山新人同盟에서는 四月二日午後四時부터 元山青年同盟內에서 緊急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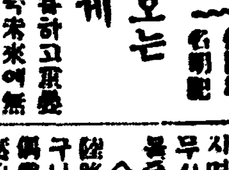
鐵原에 農校設置
道로부터 位置까지 審定

鐵原은 江原道內에서 產業發展上으로나 交通便利로나 人口의 多數로나 어느 點으로보던지 中等學校가 今日까지 設立을 보지 못함이 頗히 遺憾이던바 今般 道當局에서 農業學校設置를 立案하고 幾日前에 視學官이 學校敷地視察次로 鐵原에 到着하야 二三處適當處를 觀察하얏다는데 一般人士는 歡喜不已한다더라(鐵原)

江原鐵道豫定線

旣報=踏査員春川通過 總督府鐵道局長大村卓一氏는 市來秘書官 新田鐵務課長과 同伴하야 江原鐵道豫定線踏査次로 去二十八日 自働車로 來春하얏는데 春川繁榮會主催로 當地淺路屋에서 官民八十餘名이 모혀 盛大한 歡迎會가 有하얏고 同一行은 翌二十九日 金化方面으로 出發하얏더라(春川)

院長 羅利□ 學監 金容煥 庶務 羅萬成 財務 朴鎔俊 理事 金鮮洙 李明用 金容甚 朴鍾奭 曹成煥 徐寅奎 梁宜默 李迪祚(木浦)



實社會에 나오는 學生諸君에게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辛酸한 辛苦를 備嘗하고 艱難한 波瀾을 겪그며 오즉 未來에 無限大인 그무엇을 爲하야 奮鬪의 功을 마치고 月桂冠과 勝利의 花環을 몸에 안고 實社會에 나오는 新青年諸君의 歡喜를 諸君과 가티 깃버하며 讚賀하기 마지안는다

◇諸君! 이제로부터 諸君의 前途에도 關山難越과 怒濤難渡의 凸凹이 崎嶇할것이다 經濟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敗殘結束의 朝鮮에서 混沌並且가 殘酷하는 이社會에 나서는 諸君도 赤是 모든 努力의 一般과 所謂 先覺者와 한가지 苦悶과 絶望을 繼續하게 될것이며 無限한 懷疑와 또 무서운 滅亡에 또거운 눈물을 맛볼줄 안다

◇比喩컨대 海道에 良點와갓고 陸路에 指針과 如한 所謂先覺者라는 有志紳士들이 아닌가도 一種偶像과 가리 쓰린 屈辱과 苛酷한 壓迫下에 無價値한 生活을 持續하여오면서도 矛盾撞着에 現狀을 維持하고 抗議의 念 조차업스니 엇지 이로써 우리 社會를 代表할수 잇스며 永遠한 未來를 囑望할수 잇스랴

◇諸君이여! 頹風敗俗을 徹底히 掃拔하며 모든 暗黑을 光明으로 轉換식혀 眞理에 社會를 形成開拓할 諸君은 무엇보다도 먼저

時時로 變遷하는 現下 우리 社會相은 渺渺하게 허매이는 吾人의 生活을 如何한 方面으로 向케하나 될지니 다만 衆者는 滿身의 무거운 짐을 지고 實社會에 나오는 諸君에게 斷然한 活動을 遠大한 未來를 要求하며 企待치 안흘수 업다

◇政治的 經濟的의 事情 더구나 具體化하는 社會的 必然으로 생기는 諸般의 現狀을 論함은 무질업시 諸君에 活潑한 銳氣를 奮發하야 이에 略하거니와 諸君은 不自然한 現代社會組織에 落望悲憤치 말고 利己主義에 誘惑되고 睡眠狀態의 陷한 同類에 驚起를 爲하며 또 거운 感興과 切實한 覺醒을 주라

◇希望의 未來는 青年의 것이다 熱氣勇動하고 充實한 青年의 未來를 速히 實現하기 爲하야 힘쓰자

(청천두 湘月生)

三光青年總會

慶南三千浦三光青年會에서는 革新後第一回定期總會를 去二十八日 西里佛堂에서 開催하고 經過報告 不正會員懲戒가 有한 後 左記各項을 決定하얏다더라

◇決議
一、會金徵收方에 關한 件 一、闖入에 關한 件 一、不良會員處理에 關한 件(以下略)

◇改選委員
總務部執行委員 姜大頊 文嶽東 庶務部執行委員 李圭凡 姜一秀 姜大均 財政部執行委員 朴奐守 宋允煥 敎養部執行委員 李仁奎 孫奐秀 社交部執行委員 李守萬 姜善玉 調査部執行委員 金一雨 金斗石 運動部執行委員 姜大頊 金一淵(三千浦)

魚物勞賃決定
元山漁員相助會評議會에서

元山漁員相助會에서는 去三月十九日 元山青年會舘內에서 第二回評議會를 開催하고 定期總會와 會式을 四月十四日陰三月三日로 決定하고 定期總會는 午前九時로 會式은 午後一時로 定하고 場所는 幹部에게 一任指定케한 後 魚物勞賃을 決定하는 同時에 此의 調査를 徹底實行키 爲하야 元山의 海岸을 三區로 分하고 各區의 調査委員一人式을 選定하엿다더라

◇區域
第一區 自上洞棧橋至魚市場 第二區 自客主組合棧橋至上里二洞棧橋 第三區 自中里一洞棧橋至下村浦下洞

◇調査委員
第一區 文喜萬 第二區 宋甚俊 第三區 韓正先(元山)

癩病者에 無料注射計劃
陝川署에서

陝川警察署管內癩病患者는 現在約七十名이라는데 此等患者에 對하야는 無料治療를 實施할 計劃으로 陝川警察署에서 目下慶尙南道로 에질에스펠 注射藥八百四十人分을 請求한바 同藥品到着同時 一般癩病患者에 對하야 無料治療를 實施하리라는데 每人一個月一回式 一個年間爲先實施하리라는데 아즉 警察署에 調査되지 아니한 者도 志願만하면 無料注射를 施하리라고(陝川)

地方警察의 禁止病!
選手慰勞宴까지도 禁止

旣報=盈德青聯主催蹴技大會는 三月二十七、八兩日間 盛大히 進行되얏는데 各地選手及遠近人士一同을 慰勞코저 二十八日夕 當地青年會舘에 會宴키로 準備되얏던바 當地警察은 突然히 設備委員을 불너 禁止함으로 一般人士及各處選手들은 無聊各散되얏다더라(盈德)

◇讀者優待新劇 盈德邑內에는 去二十六日부터 朝鮮新劇□□一行이 興行하든바 去二十八日九日兩日間은 特히 本報愛讀者諸氏의 特請으로 長恨夢 康明花 實演等을 上演하야 盛況을 呈하엿는데 自働車部에서는 特別히 自働車一臺를 無料提供하야 邑內에 宣傳케 하엿다고(盈德)

危境을 脫한 彭城中央學校
面內有志의 維持策引受

振威郡西面私立彭城中央學校는 創立以來 四個年間 同校任員의 熱誠과 面內有志의 後援으로 維持하여오든中 學校建築의 負債로 危境에 陷하얏던바 三月二十九日卒業式後 卽席에서 面內有志一般이 蹶起하야 維持策을 討議한 結果 維持의 責을 面內有志一般이 引受하얏다는데 改選된 任員은 如左하더라

◇任員
校長 姜大銑 校主 李時雨 校監 張斗翊 顧問 朴奭煥 方炯淳 朴鍾禹 幹事 朴鍾敎 金亨起 朴泰勳 張維鎬 理事 白閔泳璉 黃鶴烈 鄭雲成 諸師 樂慶 朴世鳳 南應鎬 白樂慶 評議員 韓相萬 外三十一人(屯浦)

◇平北雄辯大會延期 龍岩青年會에서는 去二十七日委員會를 開催하고 第一回平北雄辯大會는 同會事情上 後日로 延期하기로 決議하엿다고(龍岩浦)

維持計劃成案
群山光東義塾

講究會에서 決定

去二十八日 群山普成勞番에서 光東義塾維持講究會臨時總會를 開하고 同義塾의 維持에 對하야 勞聯에서 引繼하기로 決議하고 甲乙丙三級으로 維持經費를 徵收하기로 하고 每月末에 幹事가 集金하기로 하여쓰며 維持會任員과 同義塾新任員及擔當團體의 配當된 金額은 左와 如하더라

◇維持會任員
會長 李世煥 幹事 李殷亨 李春三 金崎煥 金斗日 文根集 李東和 閔金汝享 金炳淳

◇義塾職員
塾長 白雲鶴 學監 車周相 財務 李在洪 評議員 任昌煥 金明完 丁海權 朴尙圭 趙京壎

◇擔當團體及金額
共同組合勞働會 新興組合 精米刷職工親睦會 商業親睦會 各一圓 敎樹共働組合各三圓 勞働共濟會 群山勞働會 中興組織 洋勞働組合 各二圓 其外同信組合 印番各二圓五十錢 衡平分社 新勞會 飮食店組合 群山券番 普成券番 各二圓五十錢 楊柳樓二圓 平壤樓 平南樓 明月樓 各一圓五十錢 農民社群山支部 商業新報群山支局 文根集 朝鮮日報群山支局 各一圓

法院支廳 復設計劃으로
盈德面民大會

慶北盈德郡에 設置되엿든 地方法院支廳은 數年前 當局의 經費關係로 慶州에 移轉된 後 還復을 計劃하든 面有志들은 目前 委員을 選定하야 英陽 眞寶兩郡內有志들과 協議한 結果 安東及慶州는 四五百里의 距里가 되여 一般人士에게 不便이 多함으로 三郡中央된 盈德에 支廳을 復設하는 것이 合當하다하야 三月二十九日 盈德面民代表一同은 當地青年會舘에 會集하야 左와 如한 決議가 잇섯다더라

◇決議
一、上京委員 洪永杓 金永演 永田甲槌 服部讓二
二、建築費中五千圓은 地方에 負擔(盈德)

康津農民組合

康津郡唐津面校村里(元馳水) 金章容氏는 同里人士數十名을 모하 農民組合을 設置하고 資金을 積立하야 農業改良 子孫敎育 其他重大事件이 잇슬때에 補用키로함이 目的이라하며 每月十五日까지 定期會를 하기로 하얏다더라(康津)
一、農業改良에 補資할事
二、子孫敎育의 補資할事
三、組合員이 重大事가 有할時 決議上에 依하야 補資할事

咸南社運同盟에 通告文發送

三月五日咸興에서 咸南地方의 各部門的無產階級運動全幅을 指導할만한 統一機關으로 咸南社會運動者同盟이 創立되얏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盟에서는 北青에 交涉委員을 派送하리라는데 北青에서 當初의 通知가 업섯다하야 一七會 北青青年會聯合會 勞働聯合會의 幹部一同이 會合하야 이에 對한 對策을 討議한 結果 此는 北青을 無視하는 行動일뿐아니라 運動線을 攪亂케하는 者라하야 該同盟에 通告文을 發하얏다더라(北青)

第二回全朝鮮蹴球大會

時日 五月六、七、八日三日間
場所 光成高普校運動場
參加金 不要 (申請期는追後發表)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北青電燈會社 創立總會

北青郡內有志諸氏의 發起로 資本金二十萬圓의 電燈株式會社를 創立코저 準備中이던바 三月二十八日에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重役을 左와 如히 投票選定하얏다더라
取締役 張鳳翼 金丙熙 朴基孝 重本興一 師倉二三 山田吉郞 梅田□□ 監査役 金正龍 吳壽永 坂口伸三郞(北青)

開城新春講演盛況

在京開城學生親睦會主催 時代日報 朝鮮日報 新聞開城支局後援의 新春學生講演會는 豫定과 가티 三十日午後八時半부터 當地中央會舘講堂에서 開催되여 左記와 如한 三演士의 熱辯으로 聽衆에게 만흔 感興을 주고 番外로 李基順孃의 피아노獨奏까지 有하야 頗히 盛況이엇다더라
權利論을 바리고 義務觀念을 王昌業 春季와 疾病의 發生豫防 □□ 外交史上으로 보는 歐洲列强과 朝鮮의 地位 延專金誠鎬(開城)

◇金海勞青懇親會 金海勞農青年會에서는 四月十五日午前十時부터 盟祖庵에서 會員懇親會를 開催한다고(金海)

◇大邱勇進團第二定總 大邱勇進團第二回定期總會는 四月二日午後七時半 西城町二丁目同會舘內에서 開催하고 諸般事項決議와 任員改選이 잇스리라고(大邱)

訂正

昨日社說第一節第十九行第二十行은 混植이 만헛슴으로 訂正함 卽「모든 現實的要素는 多樣이오 또 多種이어서 때로는 矛盾과 撞着」云云의 文意

◇寸鐵◇

【价川】 价川面鯉龍里金某는 牛一頭를 賣却하여가지고 酒肆에 消盡한 後 行方이 不明이라고 春興에 겨웟든 모양

◇【義州】 近日義州에는 學生帽를 쓰고 담배를 피우며 料亭에 出入하는 者가 잇다 그 者들은 정말 學生이 아니겟지

◇【南原】 某面長某는 水害罹災同胞救濟의 名義下에 收合된 돈에도 自己手當額은 必除한다나 眞可謂模範面長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Apr. 1st, 1926.

THE GREAT FIGHT OF BRITISH TRADE
London Daily Mail

I

The trade returns for the first month of the year were issued yesterday. and show a distinct set-back our British exports were lower this last January than in any January since the war; and they were only about half the value of our imports for the same month.

This set-back in our foreign trade is in part due to the heavy tariffs which almost all foreign countries levy on our goods, and to troubles in China. But it is also due in part to the burdens which the workers in the sheltered trades (or the trades that are not subject to foreign competition) impose on the British industries that work for export in competition with foreign industries and which are entirely devoid of any support or shelter.

In his clever speech on Wednesday in the House of Commons, Mr. Hopkinson brought out this point very clearly. He pointed out that the export trades (which include the mining industry) "have got to carry" the building trade lock, stock, and barrel; in the same way (he said) "we have to carry the gentlemen represented so ably by Mr. Thomas"—to whose unaided efforts in placing the railwaymen "on the backs of everybody else" Mr. Hopkinson paid ironical compliments.

ホシ胃腸藥
健康이 第一이오 健康은 胃腸에서

無罪한學生을 訓導가警署에告發
학부형은대분개하는데 교장은훈도를옹호할뿐

령광공립보통학교오학년담임선생곽선옹(靈光公立普通學校五學年擔任先生谷善翁)훈도(訓導)는그학교사학년생도조천섭(趙千燮)을 엇더한 과실이잇다는혐의로령광경찰서사법실(靈光警察署司法室)의 신문을밧게 한바 이에그내용을듯는즉지난십일오후

다섯시쯤 하야하학시간에 천섭은자긔집으로도라가라고 신을차자신으러업섯슴으로 이구석저구석 찻다가 마츰내자긔신은업고 다른신이잇슴으로 누가밧구어신고 갓나하고 그신을신고 가랴하면서도오히려 마음이 노히지안흠으로 자긔담임선생인 김척영(金敵映)씨에게 그말을알리고갓섯는데 그후닷새동안이나 지난십륙일에 오학년생도인 령광면운성리(靈光面運城里)사는박희만(朴喜滿)이가조천섭의신은신을 보고니것이

내신인데 엇지하야네가 신엇느냐하며 자긔신을 몰래가저갓다고 자긔담임선생 곽선옹에게말한바 이말을드른곽선옹은 사실여하는 물어보지도안코 그어린생도 조천섭을때리며 차며함으로 조천섭은 자긔는잘못한것이업다는말을하매 곽선옹은 남의물건을 도적한놈이도로혀 항거(抗拒)한다하고 이러타는사실을 그학교책임자인 교장에게

알리지도 안코바로현사가 도리어나잡으랏이 두말할것잇 잡고 경찰서로다리고가서 구두고발(口頭告發)을하야 취체밧는 사법실로잡아다노코 두시간이상이나 조사하다가 결국 취유방면하엿다는데 이사실을 드른 학부형위원 정인수(鄭仁洙) 동두사람이교장에게 질문을한바 교장은『자긔가직접한일이아니라』하야책임을회피하며 그책임자인 곽선옹을두려다

자긔엽헤 안치고『이일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겟지요마는 곽선옹은 선생이라 악의로한것이라고볼수는업소 그아이가 어려서부터이러한일을하면 장래에도 습관이될념려가잇슴으로 엄중히 가르친것이 아닌가함이라』는 곽선생을옹호하는 말을함으로

질문하러 갓든학무위원들은 하도긔가막히여 다시는 아모질문도아니하고도라왓다는데 이소식을드른 학부형들은크게분개하며 엇더한 선후책을강구중이라더라(령광)

兩印刷所工도盟罷
삼십일에조건을데출하고
元山印刷工罷業擴大

원산소림인쇄소(元山小林印刷所)에단이는 직공삼십삼인에대한 동맹파업의화여은 전원산에 퍼질조짐이 보인다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삼월삼십일에 원산부해안통(海岸通)에 잇는 길뎐인쇄소(吉田印刷所)의 직공십칠인과 본뎡(本町)에 잇는 삼성당(三誠堂)의 직공륙인이 옷것을련해불면허 동맹파업을하얏다는데 이제그 내용을알아보건대 전긔두인쇄소의 직공들은 전긔요구조건을들어 지난이십팔일부로 각각고주에게 제출하는동시에 이에대한 응락을 이십구일 뎡오까지 기다렷스나 고주측에서는 이요구의 조건을 절대로 응치못하겟다고함으로 두인쇄소의 직공이십삼인은 동일오후에 모히여 또다시좌와가튼 추가조건을 각각고주에게 제출하고 삼십일에 이르러그와가티 동맹파업을한것이라더라

◇提出條件
一、賃金引上의件
가、一圓以下三圓
나、二圓以上二圓
二、解雇手當制定의件
가、六個月以上一個年外지一個月分
나、一年以上三個年外지二個月分
다、三年以上五個年外지三個月分
라、五年以上十年外지六個月分
마、十年以上一年을增加할時마다一個月分式을增加
◇追加條件
一、罷業中日當을支拂할것
二、犧牲者를내이지못할것 (원산)

同情品還至

원산소림인쇄소(元山小林印刷所)의동맹파업을 비롯하야또지난삼월삼십일에 길뎐인쇄소(吉田印刷所)의 직공들과 삼성당(三誠堂)의 직공들이 옷것을련해파업을하엿슴에 대하야 각처에서 동정이 답지하는바 ▲咸興印工青年同盟金八圓二十五錢▲元山勞聯第一區▲元山勞働聯合會五圓▲光州印工 ... 年會의檄文과 와갓다더라(원산)

『寫眞說明』 지난십이일은 중국혁명가손문(孫文)씨의 데일회긔신일임으로 북경에서 성대한추도식이 잇섯는대사진은텬안문(天安門)안에잇는 추도식장으로 구름가티모혀드는 군중

問題된朴烈減刑
사형선고한것감형은불가
政友會首相에게詰難

일본 정우회(政友會)의 소천평길(小川平吉)씨는 삼십일 오전에 약규(若槻)수상을 관저로방문하고 한시간이상을 회담(會談)하얏다는데 그내용은문컨대 이번에박렬(朴烈)과 금자문자(金子文子)에게 대하야 사형의선고가 잇섯슴에 불구하고 곳 은사감형(恩赦減刑)의 말이전한은 범인의 성질상으로보아 그外닭을알수업스며 만일 범인들의 범죄가다소간 가벼워서 사형을면하게된다하면 엇지하야처음부터 사형을선고하지안코 이미사형에 상당하다하면서 또다시감형을하엿는가 그모순(矛盾)된처치는 범인은다유익이라도개준(改悛)할여디가업는데 특히이를 감형하는리유는 아모리생각하여도 알수업는 일이요 또이것을미리 신문지상에 보도케된것은 형사정책(刑事政策)상에 큰문데이라고소천씨는 주장하야 은사의 잘못됨을 말하고 수상(首相)의 고려(考慮)를 재촉하얏다더라(동경뎐보)

事實의與否는
명언하기어렵다
江木法相談

박렬(朴烈)의감형에대하야강목법상(江木法相)은다음과가티말하더라 박렬과 금자문자에게 감형의 은뎐이 과연잇는지 또는업는지에 대하야는 나로서는무엇이라할수업스며 사형의 집행이오래되엿다는것은 사실이나 판결후한달가량이나 연긔하엿다 집행하는것은 희귀한것이 아니니 이것을 바로감형문데에 관련하야 의론할은 범우일은 농집이업지안라(동경뎐보)

舍谷面長을取調
금전관계인듯

경북의성군사곡면장리상곤(慶北義城郡舍谷面長李祥坤)씨는 지난이십칠일에 사곡주재소(舍谷駐在所)에가서중일토록취됴를 바덧다는데 그사실은아즉비밀에 부처나탐문한바에 의하면 금전관계이라는데내용이아조복잡하다하며 취됴바든 서류는벌서의성경찰서로 넘기엇다더라(의성)

借金返還을拒絕
契約日字前이라고
착취에열중한일인의심리 일반은놀나다

전북남원군대강면사석리(全北南原郡帶江面沙石里)김찬수(金燦洙)씨는작년십이월십륙일에 남원면하정리(南原面下井里)취방선우위문(諏訪善右衛門)의 매리동인(同人)의 양자(養子) 취방모(諏訪某)에게 동씨의 소유인남원면 천거리 일백구십사번디에잇는 대디와 건물 (時價)약칠백원(約七百圓)을 저당하고 이백원의 금액을 월삼분오리(月三分五厘)의 리식으로 반상긔일 삼월이십오일의계약하에차용하엿는데 지난이십오일에 그차용금원리합계이백이십원을 전긔취방모에게가지고가서령수하기를청하엿스나 계약일자의미만됨을 리유로 령수를 거절하며만일반상을원하거든계약일자인 사월이십오일까지의 리식을 합하야오라함으로 김찬수씨는 부득이그금액을 주식회사식산은행남원지뎜(株式會社殖産銀行南原支店)에 공탁(供託)하고 동남원우편국에 위탁하야 내용증명으로 그금액의 령수를 전긔취방모에게송달하엿다는데 이말을 들은일반인사는그착취에열중한심리에놀란다더라(남원)

『許可낫스면 할수업지오』
慶興郡守 沈鍾元氏談

이상의문데에 대하야 경흥군수 심종원(沈鍾元)씨를 방문하고 마하봉의 십오명의 가족이 굶게되엿스니 이에대하야 무슨선후책이업느냐고 물은즉 오매씨는 『그들이 그곳을 여러해동안 경작하엿다면 그것을관할사람에게 대부할리가업겟지오 그러나관면이 되엿는지안되엿는지는알수업스되 만일 허가만낫스면할수업는일이니 별선후책이 업겟지오』라고하더라(경흥)

日人請負者에對抗하야 牛車夫同盟休業
일인이삭전올려게준다고 륙십명이단결하야휴업해
成川麻田鑛山盟罷事件

긔보=성천군마전광산(成川郡麻田鑛山)에 소속한우차부(牛車夫)륙십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에도 우차부측은 태도가강경하야 취업하지아니하고 우차부조합(牛車夫組合)까지조직하야 철뎌단결하는모양인데 이로인하야 광업소측에서도 매우큰 곤란을밧는다하며 이문데의 해결이 장차엇지될가하야 매우주목중이라더라(성천)

鑛主도車夫同情
원만하게하여준다고

이에대하야광산사무소(鑛山事務所)에서도 큰곤란을당하야엇지하면 조흘가하고 의론이분분하엿든모양인데 책임자는말하되 우리도이문데의 진상을잘압니다 우차부들이조합을조직하면 직접책임자와 계약하야 사업을하려고한다하면서 장긔의꼭리를압고잇섯다고하더라(성천)

岡村의暴利
무리한리익을먹고 차부에게는박하게

마뎐광산(麻田鑛山)은일본금광주식회사(日本金鑛株式會社)의 소속광산으로그운반은전부강촌(岡村)이라는일본인에게맛기게되엿는데 강촌이는한둔(一屯)에 륙원가량에 맛터가지고우차부에게는 삼원가량에 실려게됨으로그의폭리는 물론이어니와 우차부는 이로인하야 생활비가부족하게되며 결국은 생활의위협을늣기게됨으로 그들로 최후의 태도로 동맹파업을 단행하여가지고 일변광주와 직접교섭하게 되는것이라더라

團結의必要로 車夫同盟組織
응모자가만타고

이와가티동맹파업을일으킨우차부들은 우리가단결이업스면 승

長湖院火災

지난 이십구일오전세시경에 리천군청미면노탑리(利川郡淸渼面老塔里)림성환(林聖煥)의집에서 불이나서 때마츰부는 맹렬한풍세로 화세는더욱심하야 일시는 자못위험하엿스나 동리사람들의 필사뎍 노력으로 동네시반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오십원가량이며 원인은실화이라더라(장호원)

十餘年耕作하든것을 無關係한日本人에게貸付
연고자인조선사람은이것을빼앗기면할수업시거산할수밧게업는형편이다
當局者의處理를疑惑또怨恨

경흥군신안면신안동(慶興郡新安面新安洞)에사는마하봉(馬下峰) 안상하(安相夏)외수인은 그동리부근에잇는미간디(未墾地)를개간하야가지고그것을경작하야 근근히 생활하든바 지난대뎡십이년도림야됴사(林野調査)에 십륙년간을개간보존치 못하엿다는 구실로 됴사원들이 국유디(國有地)에편입하랴함으로 그들은 십여년간이나벌서경작하여나려오며 그것을 경작하야생활을 보장하는것이니 제발소유(所有)를만들어달라고애걸하매 됴사원들은『법규(法規)에 잇는것이니 할수업시 국유에편입하거니와 십여년간이나 경작하엿다면분쟁디(紛爭地)나 연고디(緣故地)가될리가만무하니 국유에편입한후즉시 대부청원(貸附請願)만하게되면결코다른사람에게는 대부할리가 업고이미 경작하든사람에게 대부하야 줄것인즉

넘려말고 대부청원만급히하라』고하며 강제나다름업시하야신고말소(申告抹消)를식히고 국유디에 편입하야 바렷는데 그후대뎡십삼년도사뎡공시(査定公示)후에 대부청원을드리고 허가(許可)나오기만고대하는중 요사히뜰연히도(道)에서서촌(西村)이란도속이 엇던일본사람과 함께

신안동에 출장하야 그동민들의대부청원을드리고허가나오기만 고대하는그곳을 됴사함으로 그내용을알아본즉 일본문사(門司)에잇는 관뎐(貫田)이란 일본사람에게 그영을대부하야주게되엿다는데 더욱 서촌이란도속도 그동리에서역시 관뎐이란일본사람에게 대부하게되얏다고 명언까지하엿슴으로 청원을드리고 허가

나오기만 고대하든동민들은 이말을듯고 크게놀라는동시에 더욱십여년동안이나 힘써 경작하든 그곳디원주민(地元住民)에게는 대부하지안코기경뎐(旣耕田)을 무리하게 국유에편입한후 다른곳에잇는 일본사람에게 대부하야주는 당국의심사에 퍽지안흔불평과 의혹을가지며 또한전긔동민들이 드린대부청원은 반려도하지안햇슴으로

의심업시 허가되기만고대하든중에 이러케되엿슴으로 더욱 억울하게 생각한다하며 그중에 마하봉이란 사람은원래 길주(吉州)사람으로서 십여년전에 그동리에이주(移住)하야 그영을개간하야 십오명식구가 전혀거긔에 목숨을달고 지내오든바 이번그영을 빼앗기게되면 그의전가족은 갑작히살길이업허저

그동리를 떠나지안흐면 안될참담한 경우에 일으렷슴으로 일반은 전긔가족의 참상을동정한다더라

虛荒한巫女妖言
미륵이말을한다고전파하야
일반에게폐해가적지안타고

시흥군신동면신원리(始興郡新東面新院里)에는 각디로부터사람이 매일수십명식 모혀드는데 그원인인즉 전긔 신원리에잇는 미륵(彌勒)에게 불공을 드리면 그사람의 길흉화복을 일러준다는 허황맹낭한소리가 전파되야 원근각디로부터 그와가티 모혀드는것이라는데 이러한 소리의 출처인즉 동리사십오번디에 사는 김아기(金阿只)(四十)라는 녀자가 예전부터 그동리에잇는미륵(彌勒)에다가 머리에 고깔을 씌우고 몸에는 장삼을닙혀노코 전긔 김아기는 말하기를작년봄부터 미륵이자긔몸에 실려서누구든지 그미륵에게 불공을드리면그사람의 길흉화복을 미륵이 자긔에게 말을하면 자긔가듯고 전하여 준다고하야 이소문이천정퍼저서 각처에서 모혀드는사람들이 매일그집으로 독차서 칠식묵어가면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도 만타는데 그녀자는몃달이내로 수천원을 거금하엿다하며 요사히에이르러서는 별별 해괴한말을 다한다더라(송파)

殺妻刀로自刎
실행한안해찔러죽이고
그칼로제목을찔은남편
悽慘한愛慾地獄

전북고창군 심원면 월산리(全北高敞郡心元面月山里) 리준근(李俊根)(三五)은 지난 이십칠일 오후두시경에 자긔안해되는구도화(具桃花)(三五)를 손칼로찔러 즉사케한참상이잇섯다는데 이제그 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전긔리준근은 지금부터 이년전에구도화와 내외간이 되엿는데 녀자역시 행실이 부정하야가정은풍파 그칠날이업든중 지난삼월 십구일 남편이수일 출타한것을 긔회로하야 근동에서는 청년과밀회한관계를맺게되엿든바 그들의사랑이극도로 깁허가매 남편을집에두고도 밤을밝히는일이 자진外닭에 필경남편에게 들키어 죽도록 마젓건만 그래도 집에부터잇지안흘뿐아니라본부에게리혼을하라고강청함으로 리준근은여러가지로 타일으며 가티살기를 간청하엿스나 종시불청하고 역시집을뛰어나와 돌아다니든중 지난이십칠일오후두시경에근동 류병운(劉秉雲)의집에잇는것을 탐지하고 남편이 또차저가서간곡히달래엇스되 역시 불청함으로 준비하얏든손칼로 목을 찔러즉사시키고그칼로자긔목을찔럿스나 생명은 구하게되엿다는데 소관 경찰서에서는즉시리준근을검거하야엄중취됴중이라더라(고창)

大邱婦人見學
二日繼續
懸賞抽籤도잇다

긔보=본보대구지국(大邱支局) 주최로 부인견학회를 하야 오는팔일에 대구시내에 잇는중요한곳을 자동차로 견학한다함은 이미본보에 루차보도한바어니와 모든것이 구테뎍으로 발표되기전부터 일반의희망

海上에서燒死
화로불로인하야

지난 이십사일오후한시에 진남포압강 비발도(鎭南浦前江飛發島)압헤서 곡식을실고 황해도 안악방면으로 건너가든 복선에서 돌연히화로(火爐)로 로인하야 불이닐어나서 그배가운데서자든 선부한명이 무참히 타죽엇다는데 그사람의주소와성명은 알수업스나 년령은한삼십된청년이라하며 배에는 별로손해가업섯는데 이급보를 접한진남포검사국 검사와 진남포경찰서경부가현장에 나아가서 상세히됴사하얏다더라(진남포)

採石場에서 車夫一名慘死
마차에실어오든돌이문허저서

고양군한지면하왕십리(高陽郡漢芝面下往十里)마차부 김자근산(金者斤山)(三)은삼십일오전 열시경에 동대문밧자지동(紫芝洞)채석장(採石場)에서 돌을싯고 나려가다가 돌이문허지면서 차부의머리우로떠러저서중상을 당한바 즉시총독부의원에 입원시키여 응급치료를하얏스나 마츰내절명되엿다더라(고양동누지국뎐화)

金浦金組 不正事件暴露
조합원들은조합역원을비난

경긔도김포금융조합(京畿道金浦金融組合)에서는 근일엇던부정사건이 폭로되야 일반조합원간에도 여러가지로 말이만흔중 동조합태도를 주목하는 동시에 조합장(組合長)이하역원들을 전부신임치아니한다는데 이제그의 사실을 대강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달초생에 경긔도 련합회로부터 돌연히마장(馬場) 부리사(副理事)이하 서긔이인이 당조합에 출장하야 장부검열을 행하든중에 의외로 부정사실이 발각되야 사건은점점확대되는 동시에 동조합서긔(書記) 김모(金某)는 즉시종적을감추어 아즉까지도 행방불명이다하며

그와동시에 모서긔(書記)한아는사직을 당한후로 그후일주일이 못되야 경긔도련합회로부터 또다시 장부검열을 행하든중 문데는점점 확대되야 일반조합원간에는여론이분분하든중그후문데는무사히해결되는 모양으로일반은그의안심을하엿다가 지난이십오일에 이르러경긔도련합 리재과(理財課)로부터 송촌서긔(松村書記)가 출장하야 또다시 장부검열을사흘간이나계속하얏슴으로일반조합원들은 또무슨사실이잇지나 아니한가하야여러가지로의혹을품는다는데 금번에행한 검열에

대하야는 별로히문데는 업는듯하다하며 전긔 문데의내용으로말하면 피해 총액이이천원미만으로 그의 대부분이조합원의 명의를 빌어 가지고금전을 소비하얏고 혹은 대부금리자수입금중으로 횡령한것이 잇스나 극히소수인모양이라는데하여간 문데는 매우복잡한 모양이라하며금번 이문데가 발각된이후로 일반조합원간에서는엇더한점으로보아 동조합장이하 역원전부를신임할수업다고비난이자자하다더라(김포)

漁船顚覆
한명은싸져죽고 두명은행위불명

모진바람이 지난삼십일 오전칠시경에동해안(東海岸)을엄습하자 고기를잡아 목숨을니어가는 어부(漁夫)네사람이 배를타고 그물(網)친곳에 나아갓다가 이모진폭풍의 습격을바더 배가 뒤집히매 한사람은 겨우근방에 잇던 어선(漁船)의 구원을바덧스나세사람은 물에싸젓는데 한사람은 죽은것이분명하되 두사람은아직까지 행위불명(行衛不明)이라고 도령에뎐보가 도착되엿다더라(대구)

价川에 畓垌紛糾事件
수천명에관련되는 물싸홈이생기엇다

평남개천(平南价川)에서데일로 우명한덕어몽(德於垌)과자개동(者介垌)의관계자들은금년도에 사용할 논물싸문에 방금크게문

휘파람

▲해주군령서무주임 청산모(靑山某)는고산면 민대표(高山面民代表)에게『바가야로』라고 하얏다가 대표가질문을하는바람에 말이잘못되얏스니 제발덕분용서하야 달라고 사죄하얏다나▲욕은 무슨外닭으로하고,취소는 무슨外닭으로 하얏노?▲대구모의사는 환자를 간통하얏다고 세상이숙덕숙덕한다 사실인지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아모려던지 자미스럽지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하게된것만은 뎡한일이다

◇取消依賴 三月二十五日附貴紙第一千九百八十二號第二面中江西郡守의談言이라는題下에『一신뷰과자는부산자나환바이오또는일천인을 勿論하고부랑자』라는記事는全然事實이無한記事이기玆에取消를請하오니至急히取消하심을望함
大正十五年三月二十九日 江西郡守 金利鉉

危險한兒戲
렬차가전복될번

지난이십삼일오전십일시십분 원산역(元山驛)으로부터 계역(■浦驛)에도착되는긔관차가원산부산제동(元山府山泉洞)의 철도선로에나무뭉치다섯개를가로노하 렬차의전복을 계획한자가잇섯스나다행히 긔관사가발견한外닭에 무사하엿다는데 원산경찰서에서 조사한결과 원산부산제동(元山府山泉洞)에사는 김회두의 넷재아들순룡(一二)의 작란으로 판명되야지난이십사일에 불러취조하고 훈계방면하엿다더라(원산)

家貰달란다고 도로혀폭행

송파본뎡(松坡本町)에서사진(寫眞)영업하는 일본인 십우차(辻又次)라는자는 허이춘(許以春)이란 칠십로파의집을 세(貰)로어더 가지고 영업하여오는바 집세가이백여원이나 밀리도록 주지안흠으로 지난이십삼일아츰에 전긔로파가 그일본인에게가서 집세를달라고 독촉하엿든바 그는집세도 주지안코 식그럽다하며 부부가 달려드러 그로파를 문밧게밀어 내여영에 구을니기까지하는등 온갓폭행을다하엿슴으로 그광경을 구경하든 그부근사람은모다 분개한다는데 더욱그로파는 아모자손도업시 고적한몸으로 전긔 집세를 바더가지고 근근히생활을보장하는터인데 그러한 집세 십삼개월분 이백여원이나 밧지못하고 도로혀칠십당년의 로구(老軀)에 그러한 꼴까지바든바 세력업는사람은 못살세상이라고일반의 비난이 만타더라(송파)

매중에 잇다는데 이제그실상을 들은즉 원래덕어몽은 사십여두락(四十餘斗落)의건답(乾畓)은 몽인데 이에따라 그부근의모모디주들이 수년전부터 작년도까지일천이백여두락(千二百餘斗落)의자개몽이란 큰몽을계획한으로 전긔덕어몽관계자 팔백여명이서명

날인하야
작년도에영년

경작(永年耕作)으로인가(認可)를어더서 계속뎍으로 경작하려는터인데 자개동관계자들은 작년도에는 덕어몽에서 물을쓰기로한다하고 허가가 잇다고 하야 량방간에 서로충돌이생겨서수일전에 자개동관계자 리원섭(李元燮)외사십이명이일천오백여호의소작인을대표하야

이문데의 해결책(解決策)을강구하야 결국도에탄원을 하기로되야 수일전에 전긔자개동관계자대표등이평남도농무과(平南道農務課)에탄원서를데출하엿다는데 그탄원서의내용은덕어몽과반분하야 물을사용케하야 달라는것인데 또한덕어몽관계자대표리덕용(李德甫)외십이명도 그러케 물을줄수업다하야 방금 싸호는중이라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이문데의 해결을주목중이라더라(개천)

斷食四十四日
세계뎍파괴록

화란(和蘭)의단식선수(斷食選手)『우오리ー』씨는단식한지사십사일만에 류리상자(硝子箱)에서나왓다는데 이것이지금까지단식의세계뎍파괴록이라더라(나우엔뎐보)

이면 초바닥실험으로 과연공원의장관에 어두리라예측할수잇스며 매우향긔로운 여러분의흥미를도읍기위하야 명성(明星)시간에 자미잇는 ... 할터인바 일등에는 십오륙원가치의 상품을 드릴터이며 이삼등에도 특히일원가치의 상품을 드릴터인

바 그외에도 ... 례년과 자동차판제로 이들너두대로를한하고 그이층곳인구일에는 ... 홍표(紅票)가 ... 바작년에 자동차도 여러가지의 불편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금년은이와가티 자동차의 편의를엇기위함이더라(대구)

殖銀金竊取犯
검사국에송치

함흥식산은행지뎜(咸興殖銀支店)으로부터원산식은지뎜(元山殖銀支店)에보내는 돈이만원이 원산역(元山驛)에와잇는것을긔회로 그중에서 사천원을때내인 범인으로서 원산경찰서(元山署)에 검거되야 취됴중이든 원산역 적모(赤帽)진원길(陳元吉)(二六)과 그의동생으로서 역시원산역 소화물계에 다니는 순길(順吉)(二二)과 그의부친 진영명(陳永明)(五八)의삼명은 취됴를마치고 지난삼월삼십일에일건서류와함께 원산검사국에송치하엿다더라(원산)

卒業式場에 一大風波
警官이解散命令
졸업장거재권에불공평하얏다고

성천군별창공립보통학교(成川郡別倉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이십오일 동교강당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아츰부터자긔의 자녀의 졸업을축복하고자 수백의 학부형과 생도가입당하야 식을이루려고할지음에 돌연히 졸업생중한명이 일어나서동교사년담임훈도박순담(朴順淡)의비행을말한후 우리는 졸업장을 밧지안켓다고말하자 졸업생일동은 모다떠들며 일대풍파를 이르키엇는데 교장이 아모리진정하여도 듯지안흠으로 할수업시 주재소(駐在所)에 통지하엿슴으로 경관이 달려가서드디여 해산을명하엿는데 그원인은 ... 졸업식을거행하게된모양이라더라(성천)

‖祝朝鮮日報殷山支局設置‖

殷山市 (成)自轉車舖 主 金亨俊 同店員 金炳喆
順川郡殷山面元井里 元井局 醫生 金聲鏗
殷山面鶴泉里 篤農家 金導學
殷山朝鮮日報支局 記者 李炳模
殷山市 金聖大
殷山市 獸肉販賣業 飲食店 方應天
殷山市 篤農家 弓永道
殷山面 會計員 黃義鐘
順川郡殷山市 天道敎宗理院 劉景雲

殷山面元井里原種牛組合 技手 小谷岩雄
殷山公立普通學校 校長 銀鏡義秋
殷山市 篤農家 朴允競
殷山面鶴泉里 李化福
殷山市 殷興理髮舘 朴炳洪
殷山市 殷山旅館 料理店主 朴魯洙
殷山公立普通學校 訓導 金昌一
殷山面西南里 李在坤
殷山市 金鍾爕
殷山面石橋里 區長 金晃煥
殷山市 雜貨鐵物 布木燒酎商 金晃根
殷山市朝鮮日報社殷山支局 顧問 李在正
殷山 面長 李炳璵
殷山市 盧安長
殷山市 司法代書人 崔弘植
殷山市朝鮮日報社殷山支局 顧問 全永善

光陽海苔漁業組合 檢査員 張丁得
殷山公立普通學校 訓導 鄭龍翼
殷山面崇化里 李養珍
光陽郡骨若面太仁里 金丁泰
光陽郡骨若面太仁里 金相

‖祝朝鮮日報光州支

光陽鄉校 掌議 徐
光陽鄉校 掌議
光陽鄉校 掌議
光陽鄉校
光陽鄉校
光陽鄉校